



영화로운 삶을 향하여

로마노 가르디니 지음 | 김태환 옮김 | 문학과지성사

얼마 전 저명한 미래학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록이 한동안 SNS를 떠돌았다.

“작은 일을 하는 동안 큰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작은 일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_앨빈 토플러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방어 자세를 취한다(오스 기니스, <인생> 참고). 게다가 나이 먹는 데에도 상당한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 늘 오늘만 살 것처럼 살고 나의 핑크빛 미래에는 젊음만을 꿈꾸며 나이 늙을 주저하여 저만치 밀쳐둔다. 미용과 건강, 젊음과 동안의 산업은 늘 호황기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는 않는다. “유년기와 청년기 사이에는 사춘기라는 위기가 있고, 청년기와 성년기 사이에는 경험의 위기, 그리고 성년과 중년 사이에는 한계경험이라는 위기, 또 중년과 노년 사이에는 분리의 위기, 마지막으로 노년과 말년 사이에는 무기력해지는 데 따른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13p) 우리는 삶의 위기와 함께 나이 먹고, 토플러의 말처럼 삶의 작은 순간은 인생이란 큰 일을 향해간다.

우리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반추한다. 나의 과거와 청소년기, 청년과 성년, 그리고 앞으로의 중년과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할지, 삶의 굴곡에서 결정적인 질문의 순간에 ‘나’를 들여다본다. 이때 그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세계관이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는 세계관을 말하지만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오늘을 말하지 않는다. 다듬어지지 않은 세계관으로 자란 힘없는 오늘의 온갖 것들을 남의 판단과 사고에 맡긴다. 삶의 중요한 문제도 대신 결정할 누군가를 찾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으로는 부족한 듯, 여전히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삶의 선택/판단/결정을 대리할 주체를 찾는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을 써볼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타인의 결정에 넘기고 타인 탓으로 넘긴다. 그런 근시안적인 눈으로 ‘홀러가는 인생’을 살다 감히 인생이라는 여정을 다 아는 줄 안다. 그러다 예상 밖 위기 앞에 주저하고 되묻는다. 내가 삶의 어디쯤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은 무엇인지 말이다.

삶의 각 시기에
삶 전체 사이의 변증법으로
삶을 묻다!

아마도 우리가 마주 하는 결정은 삶의 시기에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이 들이 위기일 수도 있고, 삶의 시기에 수행해야 할 고유한 과제들 앞에 주저하고 있기에 나잇값도 못하고 사는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나이의 연륜보다도 젊음과 동안이 자량이 된 시대에 살며 그렇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젊음은 결코 미성숙이 아닌데도 말이다.

삶의 형태는 가치 형상 또한 만들어 냅니다... 각각의 삶의 시기는 고유한 가치형상을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고유한 윤리적 가능성과 과제가 정해집니다. _15p

바로 이 책은 인생이 이런 것이더라는 큰 안목으로 삶을 조망하는 작은 책이다. 이 책은 가톨릭 신학자의 글로 일반 철학서적으로 출간되었다. 물론 차이는 알고 견지해야겠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삶의 본질에 대한 궁금이 신을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있다는 것과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공유하고 그들과 다르게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언어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를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신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마땅한 도리 아닐까 싶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더불어 영원을 향해 간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각 시기에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그저 흘러보내지 않고 차츰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성화되며 영화를 향해 간다. 삶의 각 시기와 삶 전체 사이의 변증법(17p)으로 삶의 매 순간 의당 알아야 할 것들을 넘겨야 할 난제 앞에서 꼭 한번 펴보아야 할 인생의 잠언으로 권한다.

사무실에서 작은 텃밭상자에 채소 모종을 심었다. 한참이 지나도 색도 열고 더이상 자라지 않아 텃밭으로 옮겨 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파리가 생생해지고 조금은 더 자랐지만, 텃밭에서 자라던 식물들과는 차이가 났다. 때가 되니 작은 키에도 열매를 맺었다. 문제는 미처 자라지 못한 줄기에 매달린 줄기만한 열매가 바닥에 닿는 것이었다. 우리의 삶도 그럴지 모르겠다. 나이는 먹어 가는데 그만큼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만을 두고 인생을 보고 평가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봐야할 열매는 다른 결실이어야 하는데 모두가 같은 눈으로 삶을 보고 구하는지 모르겠다. 히브리서 11장의 술탄 삶의 증인들이 뭐가 되고 어떻게 누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지금도 생생히 살아 증거한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거슬러 가고 있는지 물어본다.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충신대에서 기독교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 편집인으로 있다.